

한라산신 숭배하는 산악신앙의 제사 봉행

산천단 제단, 비석 등 제주도 기념물 지정...국태민안, 도민 안녕 기원

데스크승인 2014.07.17 김현중 기자 | tazan@jejunews.com



천연기념물 곶솔군의 거대한 가지들이 드리운 산천단(山川壇)의 제단에서는 매년 국태민안과 도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한라산신제가 봉행된다.

이곳의 한라산신 고선비 3기와 제단 2식은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67호로 지정됐다. 한라산신 제단은 산천단의 또 다른 이름으로, 효림단(孝林壇)이라고도 불린다.

한라산신제는 한라산신을 숭배하는 산악신앙 성격의 제사로 2011년까지는 제례 봉행일이 일정하지 않았다가 2012년부터 매년 입춘 후 두 번째 정일로 고정됐다.

정일이란 '천간(天干)이 정(丁)으로 된 날'이다. 정일은 '손(損)이 없는 날'로 인식돼 선조들은 상정일(上丁日)이나 중정일(中丁日), 하정일(下丁日) 중 날을 잡아 각종 제례를 지냈다.

본래 한라산신제는 한라산 백록담 북쪽 기슭에서 봉행됐고, 고려 후기인 1253년(고종 40년)부터는 국가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제례로 격상됐다.

조선시대인 1470년(성종 원년) 제주목사 이약동은 주민들이 한라산신제에 참여하기 위해 산을 오르다가 얼어 죽는 사고가 빈발하자 제단을 현재의 산천단으로 옮겼다. 1703년(숙종 29년)에는 제주목사 이형상의 건의에 따라 한라산신제는 공식 국가 제례로 채택됐다.

이후 한라산신제는 1908년 일제에 의해 금지됐다가 해방 후 산천단 마을 주민들에 의해 명맥을 유지해 오다 2009년부터는 제주시 아라동 주최로 매년 봉행되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